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 2018.11.7.(수)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서 정 호(02-3145-8200)		이 진 팀 장 (02-3145-8210)

## 제 목 : (주)우리금융지주(가칭) 설립 인가 등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최종구)는 '18.11.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(주)우리금융지주(가칭)의 설립을 인가

○ (주)우리금융지주(가칭, 이하 “우리금융지주”)는 '19.1월(잠정) 주식의 포괄적 이전\*을 통해 설립되며,

\*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,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

-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,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, 증손회사 1개(우리카드 해외 자회사)를 지배할 예정

⇒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완료

### [참고]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등

- 자회사 (6개) : 우리은행, 우리에프아이에스, 우리금융경영연구소, 우리신용정보, 우리펀드서비스,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
- 손자회사(16개) : (주)우리카드, 우리종합금융(주), 한국비티엘인프라투자회사, 우리아메리카은행, 중국우리은행,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, 러시아우리은행, 브라질우리은행, 홍콩우리투자은행, 베트남우리은행, 우리웰스뱅크필리핀,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, 우리파이낸스미얀마, WB파이낸스,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, 유럽우리은행
- 증손회사(1개) : 투투파이낸스미얀마(우리카드의 자회사)

□ 또한,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에 부수하여

○ 키움증권(주)(이하 “키움증권”) 및 아이엠애프라이빗에쿼티(주)(이하 “IMM PE”)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

⇒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%를 초과하여 보유 가능(단, 4%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 포기)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넓게 들었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